Merck, 태양전지 R&D 강화

Merck가 태양전지 및 차세대 액정 소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.
영국 사우스햄튼 인근 칠워스에 있는 첨단연구센터(AT-C)가 1년간의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16일(현지시간) 새롭게 문을 열었다.
총 300만유로를 투입해 400㎡ 부지에 태양전지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연구를 위한 시설과 사무실, 회의실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.
칠워스 센터는 Merck 화학사업의 근간인 R&D의 중추기능을 하는 곳으로 과거 10년간 반응성 액정, 유기전자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첨단소재 개발을 주도해왔다.
Merck는 연구센터를 확장함으로써 화학, 물리, 응용기술 등의 분야에서 최대 20명의 과학자와 전문인력을 위한 고급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.
칠워스 센터 소장인 클라우스 보핑어 박사는 " 첨단연구센터 (AT-C)는 화학사업의 핵심 R&D 센터로 각국의 수요기업이 원하는 획기적인 제품기술을 개발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곳 "이라며 " 유기전자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등 첨단 응용기술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념하고 있다 "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0/1/11>